

<교회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  
390-883/충북제천시백운면  
천등박달로5안길 8  
HP : www.vit2be.com  
담임목사 신상균



백운교회 소식지

창간 2014년 4월 6일 대표전화 043/652/9191

제 33호 2016년 12월 4일 발행 [월간]



담임목사 신상균

### 마음의 겨울

“찬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떨어진다. 한 잎 두 잎, 그 나뭇잎을 보면서 나뭇잎의 숫자를 세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존시였다. 존시는 폐렴에 걸렸는데, 나뭇잎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몸이 점점 더 나빠져만 갔다. 오늘도 존시는 나뭇잎의 숫자를 셸다. 아홉, 여덟, 일곱, 여섯, 존시는 말한다. ‘이제 내일 나머지 다섯 잎이 떨어지면 난 죽을거야.’ 다음날 아침 창문을 바라 본 존시는 깜짝 놀라고 만다. 왜냐하면 나뭇잎 하나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날도 그 나뭇잎은

거친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다. 그래서야 존시는 자신의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날 수 있었다. 그때 의사는 아래층 노인이 급성 폐렴에 걸렸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이튿날 존시의 건강이 회복되고, 아래층 노인은 폐렴으로 죽고 만다.”

나는 12월 달력을 볼 때마다 오 헨리의

## “마지막 한 장”

마지막 잎새를 떠올린다. 한 잎, 한 잎 떨어져 나간 나뭇잎처럼, 한 장 한 장 뜯겨져 나간 달력, 그리고 12월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뜯을 수 없는 마지막 달력이 되고 만다. 그 달력을 보면서 생각한다.

‘이제 저 달력 한 장이 끝이구나. 저 달력이 떨어지면 금년도 다 가는구나.’

마지막 잎새는 끝까지 붙어 있어서 존시

의 생명을 살렸지만, 금년의 마지막 달력은 아무리 애를 써도 붙어 있게 할 수 없기에, 결국 2016년은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2016년의 마지막 한 장이 떨어지는 날, 나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12월의 마지막 한 장

이 끝나는 날 12장의 새로운 달력이 리필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12월의 마지막 한 장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2장의 리필된 달력을 누리지도 못하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우리에게는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

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마치 존시가 죽음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 마지막 잎새를 그린 베어먼 노인에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만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성경은 말씀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에베소서 5장 18절) 그리고 말씀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에베소서 5장 33절).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 술 취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면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지 않을까?

### 백운면 자치위원장 활동보고

## 올 한해도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운면 주민자치위원장 허오영입니다. 벌써 11월 중순, 산과 들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단풍잎이 하나 둘 바람에 떨어지고 마을의 큰 감나무는 주홍빛 감만 매달고 있는 모습을 창 너머로 보며 계절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백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째, 복지회관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요가, 섹소폰, 풍물놀이, 기타교실,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등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백운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건강한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자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희생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들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백운면 효 행사를 열어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도 부리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월의 마지막 날에는 백운면민을 위한 “문화의 밤” 행사를 열어 주민 여러분의 노래자랑과 주민 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초청가수의 공연을 통하여 깊어가는 가을밤에 주민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불우이웃돕기와 하천 자연보호 등 깨끗하고 쾌적한 백운을 만들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추워지

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자치위원장 허오영〉

### 고객지원센터 조감도.



지역의 질적 발전을 위한 사심코

### 전통시장상인회 고객지원센터 2016년 12월 중 준공 계획

전통시장상인회 고객지원센터가 (구) 복지회관 부지에 건축되어 12월 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전통시장상인회는 그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주 토요일에 주말장터를 개설하고, 박달재 옛길 걷기대회 등 문화 행사를 주관하며 백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왔다.

현재 살로메식당을 운영하는 김교영회장과, 백운지업사를 운영하는 이상회사무국장이 백운면 전통시장상인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완공되는 건물의 1층은 특별히 백운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개장하여 지역의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기 위해서도 앞장선다고 한다.

2층은 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과 회의실로 운용하며, 2개조의 탁구대를 설치, 지역 주민들의 여가 시간을 체력단련으로 다질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전통시장상인회 고객지원센터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전통시장상인회 매니저 이연식〉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21)

Merry Christmas

# 성탄 축하예배

성탄전야축제 12.24 저녁 7:00  
성탄감사예배 12.25 오전 11:00  
송구영신예배 12.31 밤 11:30

백운교회